

조선왕조의 꽃 백자(I)

글 | 이종호 _ 과학칼럼니스트 mystery123@korea.com

일본의 세계적인 동양미술학자로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는 1931년 일본 최고의 국보로 불리는 기자에몬 이도를 직접 보고 다음과 같이 극찬했다.

“몇 푼 안 되던 물건이 만금으로 바뀐 막사발이야 말로 미에 대한 철학과 생활의 축소판이다. 그 아름다움은 솔직하고 자연스러우며 무심하고 사치스럽지 않으며 과장이 없다는 데 있다. 일본의 다기가 조선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작위적으로만 들어내려 하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이 보물만이 갖는 우리라든가 나의 것 등을 초월한 세계의 보편성이 있으며, 그래서 이것이 천하의 대명물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극찬을 받는 기자에몬 이도는 높이 8.2~8.9cm, 지름 약 15.5cm의 막사발에 지나지 않는다. 15~16세기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임진왜란 당시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가져간 것이다. 그런데 조선의 막사발이 일본 특유의 차문화와 어울리면서 일본 최고의 진품으로 둔갑했다.

임진왜란 겪으며 분청사기 자취 감춰

임진왜란을 전후해 일본인들은 일본과 가까운 경상도 해안지대에서 중점적으로 조선의 도자기를 약탈했고, 그 중에서도 막사발을 매우 선호했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막사발 중에서 일본의 일급보물로 지정된 것이 3점, 중요문화재로 등록된 것이 20여 점이 된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정수일 박사는 당시 약탈된 막사발을 약 200개로 추정했다.

막사발이 일본에서 이와 같이 우대받는 것은 아무 문양이 없는 백자이기 때문이다. 조선 사람들은 백자를 가장 숭상하였고 아름답게 인식했다. 성 현(1439~1504)의 ‘용재총화’에서는 ‘세종조어기 전용백자’라고 하여 세종조의 왕실에서 사용하는 도자기는 모두 백자만 사용하였다고 적을 정도로 백자는 조선시대에 우대받았다.

조선왕조는 유교를 기본이념으로 삼았는데 유교가 일반 생활문

화에 끼친 영향은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는 현세의 실질적인 생활에 충실하여 청렴, 결백하며 절개를 숭상하고 검소한 기풍을 가지는 것을 덕목으로 삼았다. 이런 사상이 배어있는 것이 바로 조선백자다. 조선백자는 고려청자에서 출발한 분청사기가 새로운 왕조인 조선왕조의 풍토에 맞게 변모된 것이다. 임진왜란이 발발하던 16세기말까지 조선의 도자기의 주류는 분청사기와 무색투명한 효과를 내는 백자였다.

그런데 조선의 도자기는 임진왜란으로 일대 수난을 당한다. 도예공은 일본으로 잡혀가고 도자기 가마는 파괴되고 관요가 그 기능을 상실하여 왕실에서의 연회에서 사용하는 향아리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정도였다. 광해군 말년에서야 비로소 15~16세기와 같은 백자가 생산되고 17세기 중엽 이후부터 새로운 백자가 선보일 정도였다. 그러나 백자보다 더욱 타격을 받은 것은 분청사기다. 백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전반의 백자주자(국보 281호)

자는 소생한 반면 분청사기는 그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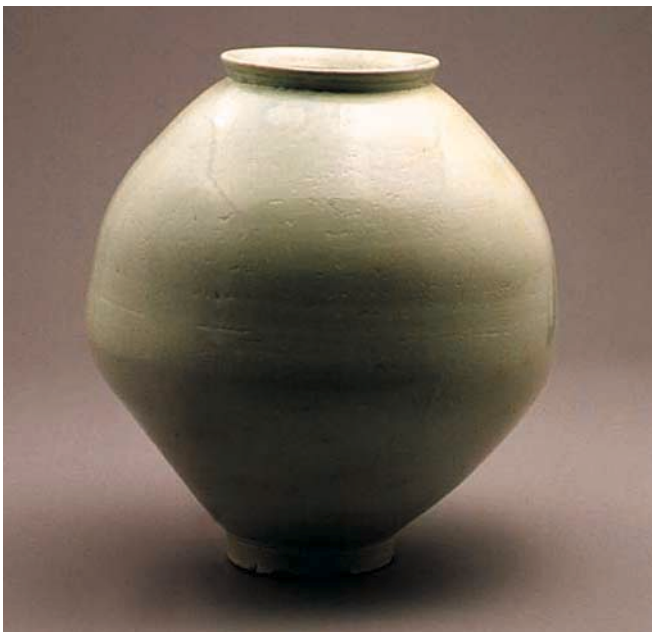
그러므로 분청사기가 사라진 조선왕조 중기 이후부터는 백자만이 도자기의 대통이 되어 백색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다듬어 나가느냐는 것이 과제였고 백색을 기조로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었다.

철 제거 기술 갖춰야 백자 제조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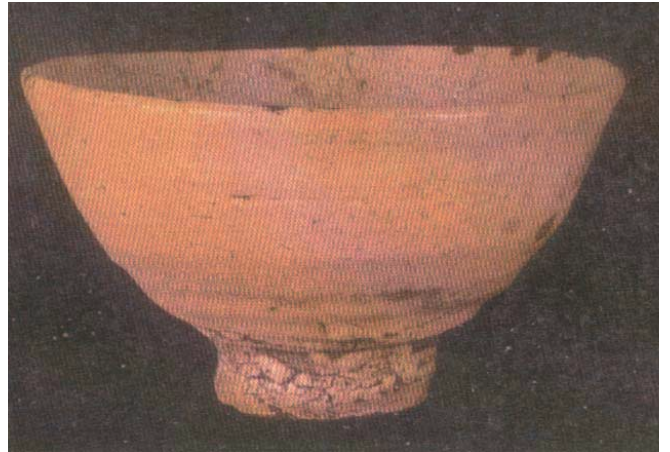
백자가 한국의 전유물은 아니다. 백자는 중국에서 육조시대(219~580년) 말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남·북국시대 말인 9세기 중엽부터 통일신라에서 생산되었다. 고려시대에도 백자가 상당량 생산되었다.

그러므로 조선 백자는 고려 백자와 중국 백자에서 영향을 받은 두 종류가 있다. 고려 계통은 약간 무른 편으로 연질 백자라 하여 우윳빛이 도는 유백색 유약이 시유되었으며 표면에는 미세한 빙렬이 있다. 반면에 중국 백자 계통의 경질 백자는 눈같이 희고 단단한 태토에 투명한 백자 유약이 시유되었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백자보다 청자가 먼저 출현했다. 이는 빗살 무늬토기에서 무문토기로 발전하는 것처럼 당대의 도자기 기술 때문이다. 각종의 유색 자기는 철, 구리, 코발트, 티타늄, 망간 같은 금속 원소를 발색제로 사용하는데 유약에서 이런 발색제를 깨끗이 제거하면, 즉 철의 함유량을 최저로 낮추면 곧 순백의 백자를 만들



백자대호(국보 262호)



기자에몬 이도 다완, 15~16세기에 조선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일본의 일급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수 있다. 즉 백자를 굽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어야 하는데 고대의 자기 제조에는 각종 제한 조건 때문에 아름다운 청색과 청록색의 청자가 먼저 출현한 것이다.

물론 중국의 경우 청자가 백자보다 먼저 출현한 이유로 중국 대륙의 기후와 풍습에도 관련이 있다고 중국의 총덕신은 설명했다. 신수가 수려한 강남 지역의 사람들은 자연의 푸름을 알고 청색을 숭상하는 반면, 눈이 많이 오는 자연 환경에 있는 북방 민족들은 백색을 미의 상징으로 추구했으므로 백자는 중국 북방에서 출현했다는 것이다.

백자는 순도 높은 백토로 그릇을 성형하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안료와 기법으로 문양을 나타내는 것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순백자, 상감백자, 청화백자, 철화백자, 진사백자 등이 있다.

안료 · 문양 기법에 따라 종류 다양

순백자는 안료로 그린 문양이 없는 것을 말하며 중기 후기에는 음각, 양각, 투각 등이 있다. 조선왕조 전기에는 순백자가 대부분이며 여기에 문양이 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백자의 선호도는 조선왕조말까지 계속된다. 조선인들은 순백에서 여러 가지 함축성이 있는 무궁한 의미와 변화를 발견한 것이다.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우리 선인들이 좋아하는 백자는 청화백자나 진사, 철사 등을 이용한 화려한 자기보다 몇 십 배의 정성과 노력, 재력을 소모하여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상감백자도 유태의 질에 따라 고려 계통의 연질과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경질의 두 종류로 구분된다. 순백의 순도 높은 태토의 도자

기면에 문양을 새기고 거기에 자토를 메워 넣고 그 위에 백자 유약을 시유하여 번조하면 문양이 검은색으로 나타난다. 상감 백자는 고려의 상감기법을 이어받았다고 인식하지만 백자의 질에 따라 달리 취급하기도 한다. 특히 경질 백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문양과 구도는 분청사기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철화백자도 유태가 경질인 것과 연질인 것 두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 경질이다. 철화백자는 대접, 접시, 항아리, 병, 제기 등 여러 가지 형태를 보이며 같은 시대의 분청사기나 상감백자와 같은 기형도 많다. 문양에 있어도 간결한 매화절지문, 죽문, 포도문 등 회화적인 수법으로 묘사된 뛰어난 작품들이 많다.

진사백자는 산화동으로 시문하여 문양이 붉은색을 내는데 조선 시대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정양모 박사는 '동국명산기'에 세종의 아들인 안평대군이 강화도에서 붉은 사기를 제조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조선 초기에도 진사백자가 번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적었다.

18세기의 진사백자는 같은 시대의 청화백자와 같은 구도를 갖추고 있으며 18세기 후반기부터는 진사를 면으로 칠하는 진사채 기법을 도입했다. 이 기법을 사용하면 백자의 흰색과 진사채의 붉은색을 강하게 대비시키기도 하고 청화채와 병용하기도 하여 매우 화려한 진사백자가 등장한다.

안료 자체 개발해 한국화된 청화백자 제조

청화백자는 조선백자를 특징짓는 것 중의 하나다. 청화백자는 순도 높은 순백의 도자기 면에 코발트계의 청색 안료로 그림을 그리고 순백자와 마찬가지로 순도 높은 장식계 유약을 그 위에 씌워



백자철화포도문호(국보 93호)

번조한 것을 말하며 생산법은 기본적으로 순백자와 같다.

중국에서는 원나라 때 청화백자가 완성을 보고 명나라 때 그 절정에 달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청화백자가 일반적으로 세종 10년(1428)에 유입되었다고 추정하는데 고려말에 이미 도입되었다는 설명도 있다. 그러나 청화백자가 한국화된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대체로 1450년부터로 추정한다. 이는 청화 안료의 자체를 조선에서 개발하고 시험 번조라는 시대적 상황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17세기 들어 청화백자 제작이 사양길을 걷다가 1700년대에는 청화백자가 급증한다. 이것은 아마도 장인들이 비관청용으로 공급을 많이 한데다가 일부 부유층에서 중국이나 일본의 자기 수집에 열중한 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18세기 중엽에 제작된 청화백자의 특징으로는 기면 전체에 문양을 그려 넣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당시에 유행하던 민화를 그대로 옮겨 놓은 작품도 있으며 기면을 차지하는 산수의 범위가 넓어지고 조선 전기부터 애용되던 소재인 매죽과 새를 포함하여 중기의 난이나 패랭이 등의 문양도 계속 나타난다.

19세기경에는 청화백자의 형태, 무늬, 기법 등이 더욱 다양해졌다. 무늬의 소재로는 십장생, 문자, 봉황, 학, 산수도, 포도, 물고기, 기하학적 무늬 등이 사용되었고, 특히 문방구가 다양해졌다. 조선 말기에는 전면에 청화색감을 칠하고 유약을 올린 자기들도 등장한다(다음 호에 계속). ㉮



백자 반합(보물 806호)